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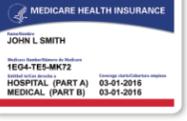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advisorsustrust@gmail.com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카톡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간지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Complete Auto Repair & Body Work
Lic. #2208A
NJ State Inspection

Tel (732)985-9500
Fax(732)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품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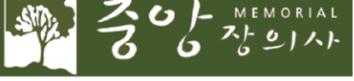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클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사순
제 3주일
2020년
3월 1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탈출기 17,3-7
화답송 시편 95(94), 1-2, 6-7, 9 (◎ 7, 8, 9 참조)



후렴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마라.

복음 요한 4,5-42
〈솟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복음환호송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전례 성가	입당성가	봉헌성가	성체성가	파견성가
	118번	221번, 340번	156번, 168번	119번
성체 분배	# 당분간 성체분배는 없습니다.			
안내 봉사	# 3월: 사랑하올 어머니 Pr # 4월: 순교자들의 모후 Pr.		친교 봉사	# 당분간 친교봉사는 없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 3/15: 백용숙 카타리나		봉헌 봉사	# 3/15: 이석중 스테파노 이주민 헬레나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김진자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김정수(이사벨라), 황학성(야고보)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 최경삼(안나), 안갑수 - 최 율리아나
- 나제이(퀸틸라) - 가족
- 문형곤(예비자) - 이 비비안 외 3명
- 김수지(아네스) - 채 바오로, 데레사 가족
- 김기수(프란치스코)신부님 수술건강회복 - 유 베로니카

지난 주 우리의 정성

구분	1차 헌금	2차 헌금	합계
KCC	\$2,591	-	\$2,591
OLM	\$3,097	-	\$3,097
합계	\$5,688	-	\$5,688

미사 참석: 264명

교무금 안내

이상화(3)	채희백(3-4)	박락준 (3)
이대우(1-2)	한철희(3-4)	한광동(3-4)
합계 \$1,26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신자석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2020년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이며 목표액의 26% 달성하였습니다.

공지 사항

2차 헌금 안내

- 오늘 주일(3/15) 미사 중 성당 유틸리티 비용 마련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 사순시기동안 미사 시작 30분전 11시부터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아래 단체별 봉사 일정 참고바랍니다.
3/15 프란치스코회 3/22 대건회 3/29 야고보회 4/5 주일학교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사순특강 일정

- 1차 사순특강 일시: 사순 제 3주일 3월 15일
강사: 이영준 스테파노 신부님(이튼타운 성당)
주제: 회개와 보속
- 2차 사순특강 일시: 사순 제4주일 3월 22일
강사: 김기현 모세 신부님(프린스턴 성당)
주제: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선택

A Tour Through Holy Week

- 일시 및 장소: 3월 26일 (목) 저녁 7시 친교실
- 몬시뇰 Fell과 함께 하는 1시간 성주간 여행에 초대합니다.

새신자 1일 피정

- 일시 및 장소: 3월 29일 (주일) 미사 후 성당

사순 판공 안내

- 일시 및 장소: 4월 1일 (수) 저녁 7시 30분 (7시 - 참회예절)

Rosary Altar Society 주관 Bake Sale Donation 안내

- 미 신심단체 Rosary Altar Society 주관 Bake and Flower Sale 행사가 4월 4일(토) - 5일(주일)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미 동북부 여성 제38차 꾸르실로

-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23일(목) ~ 4월 26일(일) 뉴튼 분도 수도원
- 대상: 영세받으신 3년이상 여성 신자로서 본당 신부님이 추천하신 분
- 접수마감: 2020년 4월 7일(화)
- 신청방법: 본당 사무실 또는 사무국 총무 박홍근 크레센스(917-399-9911)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 참가신청비: \$3,000 (신청마감 3월까지)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5-42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치지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 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더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샷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복음 묵상 나눔 (사순 제3주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요한 4,14)

1.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무엇이였을까요?
2. 예수님을 향한 사마리아 여인의 호칭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오늘 복음 안에서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호칭의 변화는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변화되는 신안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고백하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는 호칭 안에서 어느 수준과 같은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요한 4,7)

1. 복음에서는 많은 경우, 치유 이야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주님께 도와 달라고 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에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와 몇몇 다른 치유 이야기에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먼저 다가 가시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고 나누어 봅시다. 또한 이런 주님과 닮은 행동을 해 본적이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었는지 나누어 봅시다.